

### 함평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 ‘맞춤 교육’으로 취업 꿈 이룬다

함평군 함평읍 가락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이하 장애인 능력개발센터)에는 요즘 29개의 꿈이 가을 들녘의 벼이삭처럼 알차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장애인 훈련생 29명이 삼성 전자 등에 취업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5개월째 받고 있는 것이다.

1개월 후면 졸업하기 때문인지, 지난 10일 오후 장애인능력개발센터는 훈련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강의실 한쪽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을 하는 장애인들이 열심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고,

그때도 6개월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오는 11월부터 ‘삼성전자’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단체 생활에 익숙지 않아서 힘들어 하거나,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안 좋아요.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 정말 답답하긴 해요. 미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활발한 성격으로 수업 분위기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3층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엑셀·엑세스 등 전산 교육을 받고 있다. /합평=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장애인 29명 6개월 동고동락하며 수업 컴퓨터 배워 전원 ‘삼성전자’ 취업 예정

CAD를 공부하는 다른 장애인들의 눈초리는 오후 시간인데도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다.

모두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는 이들의 하루는 새벽 6시30분 기상으로 시작된다. 간단한 운동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행군을 한다.

훈련생들은 저마다 지체(22명)·청각(2)·언어(1)·시각(1) 장애와 뇌병변(3)을 앓고 있다. 하지만, 기계(8명)·정보기술(19)·디자인(2)을 배우며 다양한 취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수업시간 외에는 센터 내 수영장·체육관·노래방 등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교육에 대한 압박과 집안 사정 등으로 6명이 중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끄는 김희경(여·26)씨는 본인도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는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DB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정보 기술 분야의 최대성(28)씨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산업재해로 왼쪽 팔을 잃은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실패하고, 우연히 공단 홈페이지에 나온 맞춤형훈련생 모집 공고를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

다. 교육 막바지에 이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노력에 따른 결실도 보이기 시작해 벌써 기대에 차 있다.

박진홍(56)원장은 “지난해부터 맞춤형훈련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12명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켰

다”며 “29명의 훈련생들도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 10월 26일 수료식을 하고, 11월부터 일반인들과 똑같은 신입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 꿈에 바라는 독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합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이대원 장애인고용촉진 광주지사장

## “장애인 고용은 기업 특성에 맞게”

“광주·전남의 경제구조와 기업체들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원(5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37%·1.40%로 전국 평균 1.35%

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은 건설비중이 39.1%로 비교적 높아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기업에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각 장애인 유형에 따른 직무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에 중점을 두었던 지체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간

병·물리치료 보조 직무를 개발했고, 실의 근무가 위험한 간질 장애인들의 재택 근무를 위해 CAD분야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지사장은 “최근 ‘대주건설’이 장애인체육단을 창설해 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기업과 장애인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보다 많이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매월동 유통단지 빨리 개발하라”

## 주민들 “사업권 민간업체 이양” 요구 광주시 “사업시행자 부도 우려” 난색

부지개발 사업자 선정 이후 7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광주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2단계 부지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소유주들이 ‘민간업체로의 사업권 이양’을 요구하며 사업주체인 광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광주시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2단계 조성사업 부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가칭)유통단지지원시설지구개발조성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광주시에 두 차례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광주시로부터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광주시도시공사’가 7년이 다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시행의지가 없는 도시공사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이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의 개발 선례가 없는데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에 조합은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 부지를 개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할 경우, 유통단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며 “1단계 부지 개발 당시 평당 분양가가 65만원이었던 것이 2단계 때는 자가변동으로 인해 120~130만원으로 올라 사업 타당성이 낮아진 만큼 시의 지원을 통한 공동개발 방식

를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문과 결과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하자 없는 사업을 막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2단계 부지조성사업’은 지난 1996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광주 시 구 매월동 산8의 41필지에 대한 유통단지 지원시설지구로 지정, 다음해 1단계 유통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 2000년 11월에 ‘광주시도시공사’를 2단계 부지(118,119㎡·3만5천700여평)개발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도시공사는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7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걱정 말고 출산하라더니...

## ‘산모도우미’ 예산 조기 바닥, 지원 못받을 처지

### 광주시·자치구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산모도우미’가 필요한 저소득층 산모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조기 바닥나, 출산 예정 산모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와 각구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 배정된 산모도우미 예산은 6억 800만원, 1천106명 분인데 도우미 이용 신청이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사실상 마감됐다. 북구는 341명분의 예산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로 신청이 마감됐으며 남구도 121명분에 대한 신청이 최근 끝났다. 서구도 252명분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는 등 일선 구 대부분이 사업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려던 출산 예정자들이 신청을 거절 당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부 C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시판에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니 예산이 바닥 났다며 안된다고 했다”며 “아이를 늦게 낳는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산모도우미 이용 희망자가 쇠도하자 서구와 북구 등 일선 구는 추가 대기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만 40여 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억2천만원의 국비지원을 추가 요청했다. 광주시와 일선 구는 “도우미 예산을 보전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출산 예정 산모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모도우미제도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날 경우 12일간 산모도우미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54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은 8대2 비율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지하차도·터널 등

## 시설물 대청소

광주시 건설관리분부는 추석을 앞두고 12일부터 16일까지 지하차도와 터널 등 10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대청소를 한다.

대상 시설물은 송정·선운·하남2·비아·운암·농성·효덕 등 지하차도 7개소와 짚방·용산·칠곡 등 터널 3개소이다.

광주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교통 흐름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벽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조명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청소기간 동안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b>교통안내</b>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b>생활정보</b> 보건복지위원회 671-4050 광주YWCA 527-0011 <b>24시간 청소년상담국번없이 1388</b> <b>국세종합상담센터</b> 국세청 1588-0060 <b>병무민원상담</b>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b>소비자 상담</b>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b>법무사회 법률상담(12일)</b> 주부고실 232-0643-4 주부고실 309-9881	<b>교육관련</b>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233-2828 <b>사이버테러</b> 02118 <b>기장특역</b>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가동우사대(광) 229-0118 (세부)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b>광주이동화대방센터</b> 1391 <b>광주노인화대방센터</b> 1389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개강 9월 3일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대표 1위

361-8111 529-8111

##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한약·건강·피부·헤어디스톡

HAVER 검색참여 지리산한약방을 찾아주세요

문의 062-531-3636, 631-0700, 523-4660, 011-9612-5530

<b>크오형새마을주</b> 399,000	<b>349,000</b> 349,000	<b>299,000</b> 299,000	<b>399,000</b> 399,000
<b>299,000</b> 299,000	<b>299,000</b> 299,000	<b>299,000</b> 299,000	<b>299,000</b> 299,000